

부산광역시체육회의
언론보도 내용, 부산체육 특특 등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만나볼 수 있는
부산광역시체육회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해주세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Q

→

+

카톡상단
검색창 클릭

스캐너로
QR코드 스캔

홈에서
채널 추가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생활
5% 할인
간편결제/CU/GS25/스타벅스

의료
10% 할인
병의원/약국/안경

체육시설
10% 할인
부산광역시체육회 지정 시설

스포츠
10% 할인
골프/스포츠레저 업종

학원
5% 할인
학원/안경

부산광역시체육회와 함께하는
**부산체육
사랑카드**

부산시체육회 지정 체육시설 10%,
월 최대 1만5천원 할인!
스포츠, 의료, 학원 등 생활 곳곳에서
할인 챙기세요!

연회비
국내전용(BC) 1만원
(기본 연회비 없음, 제휴 연회비 1만원)

카드 자세히 보기

부산광역시체육회 × BNUK 부산은행

[필수 안내사항]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정당한 경우(연체금 보유, 신용점수 등 낮음)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상환 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이자율: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최대 3%p, 법정최고금리(20%) 이내 (단, 연체발생 시점에 약정 금리가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 합니다.) -일시불 거래 연체 시: 거래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금리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금리 -그 외의 경우: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 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 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또는 부산은행 고객센터 (1588-6200)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UK 부산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1868 (심의일자 2024.10.17) 유효기간: 2024.10.25 ~ 2025.10.24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4-C1d-13136호(2024.10.25 ~ 2025.10.24)

부산체육

2025. 04 Vol. 77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부산체육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Vol. **77**
2025. 04

푸른 바다, 큰 꿈
경남여자중학교 배구부

전국체전 trivia
1950~60년대의 전국체육대회 이야기

함께하는 부산체육
The Grit Basketball



GATE
BALL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체육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2025. 04 Vol. 77

발행일 2025년 4월 15일
(월간, 비매품, 통권 제77호)

발행인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 장인화

편집인 신현기

편집·취재 정종욱, 공제원, 김성무, 유동호

발행처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051-500-7900

기획·제작 (주)디자인제로

 
Instagram 카카오톡 채널
부산광역시체육회 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CONTENTS

부산 스포츠

- 04 체전은 지금
- 종목담당관 임명장 수여 및 성공다짐 결의대회 개최
- 2025년 전국체전 준비 상황 점검
- 08 부산체육인
부산광역시 체육국 손태욱 국장
- 12 금빛 훈련일지
부산광역시체육회 철인3종팀
- 16 푸른 바다, 큰 꿈
경남여자중학교 배구부

산 뜻한 출발, 영광의 시작

- 20 경기장 밖 부산
자연과 함께 다채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는 여행 - 남구 & 북구
- 24 Sports is Busan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부산선수단 해단 및 유공자 시상식
- 26 전국체전 trivia
1950~60년대의 전국체육대회 이야기
- 30 함께하는 부산체육
The Grit Basketball

하 나된 꿈, 행복으로

- 34 스포츠 기자단
- 부산스포츠과학센터
- 세븐비치 여성 챌린지
- 38 종목 소개
게이트볼
- 42 스포츠&컬처
울곡이 체육을 말한다

나와 너, 우리 함께

- 44 BSC 뉴스
- 부산광역시체육회-구·군체육회-대한체육회
- 제4회 부산광역시체육회장배 축구대회 성료
- 부산광역시검도회, 부산광역시체육회 검도 실업팀에 후원금 전달
- 46 회원단체 소식
- 52 센터 INFO
- 54 종목·공공스포츠클럽 소식
- 56 부산체육 퀴즈



08 부산체육인



12 금빛 훈련일지



24 Sports is Busan



30 함께하는 부산체육



34 스포츠 기자단



38 종목 소개



44 BSC 뉴스



54 종목·공공스포츠클럽 소식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종목담당관 임명장 수여 및 성공다짐 결의대회 개최



부산광역시체육회는 3월 26일(수) 아시아드시티에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종목담당관 임명장 수여 및 성공다짐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오는 10월 17일(금)부터 23일(목)까지 부산 전역에서 개최될 전국체육대회 대비 철저한 준비 및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진행되었다. 종목담당관은 경기 운영과 경기장 관리, 대회 운영인력 관리, 중앙종목단체와 유관기관 업무협약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을 비롯하여 이상연 부산광역시 전국체전기획단장 및 대회 참가종목별 담당관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장인화 회장은 “전국체육대회는 스포츠를 통한 화합과 도전의 장으로, 부산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종목담당관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대회의 성공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종목별 경기장 확정을 위해 부산광역시와 함께 대한체육회 및 중앙종목단체와 경기장 공·승인 절차 및 경기에 필요한 용기구 구입(임차) 등 대회 전반에 대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부산 시민들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전국체전기획단 체전기획팀

2025년 전국체전 준비 상황 점검



부산시는 지난 3월 28일(금)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준비 상황 보고회(이하 보고회)를 박형준 시장 주재로 개최하였다.

보고회는 시, 구·군, 시교육청, 부산경찰청, 시체육회, 시장애인 체육회 등 50여 명이 참석해 전반적인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했으며, ‘전국체전 추진 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각 집행부의 ‘세부 추진계획 보고’와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보고회에서는 ▲대회 운영 ▲교통, 안전 대책 ▲체전 홍보방안 ▲안전관리 대책 ▲선수단 환영과 편의 사항 ▲경기장 시설 건립 및 개보수와 주변 환경 정비 등 준비 사항 전반과 대회 품격 제고를 위한 협업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산악경기장 등 3개 종목 경기장 건립을 전국체전 개최 전에 완료하고 구·군 경기장 개보수 등도 6월 중에 마무리해 선수단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도록 하며, 관람객은 편리하고 안전하게 경기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전국체전은 ‘안전’과 ‘배려’를 강조한 대회로, 부산 시민과 참가자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함께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동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남은 준비 과정을 더욱 철저히 점검하고, 종목별 경기장 점검, 자원봉사자 운영, 개·폐회식 준비 등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25년 만에 부산시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회 운영의 전반적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였으며, 전국체전이 차질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한 발 더 빨리 준비를 마무리할 것과 분야별로 직접 현장 확인을 진행하고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한 문제점 보완 등을 주문하였다.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는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7일간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등 82개 경기장에서 50개 종목으로,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6일간 38개 경기장에서 31개 종목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체육, 시민들 곁으로

부산광역시 체육국 손태욱 국장

지난 3월 5일, 부산광역시 체육국이 출범하였다. 체육국이 만들어진 것은 광역시도 최초인 만큼 체육국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손태욱 국장을 만나 체육국이 꿈꾸는 부산체육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건강 더하기 행복

부산시는 '생활체육 천국도시 부산'을 비전으로 삼고 이를 실현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체육국 신설은 비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자 건강과 여가에 대해 높아진 시민들의 관심에 부응하는 조치다.

“시민들께 가장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분야가 체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국은 부산체육의 컨트롤타워로서 관련 정책을 조율하며 시민들께 건강과 행복을 드릴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해나갈 것입니다.”

체육국은 체육정책과, 생활체육과, 전국체전기획단,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등 3개 부서 1개 사업소로 구성되었다. 체육정책과는 체육시설 확충, 스포츠 산업 육성, 국제 대회 유치 등 체육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며, 생활체육과는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의 관리 및 확충 업무를, 전국체전기획단은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관련 업무를,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주요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체육국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요 사업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세계도핑방지기구총회, 사직야구장 재건축, '생활체육의 달' 지정 등이다.





세계가 주목하는 부산체육

“세계도핑방지기구총회는 지금까지 다섯 차례 개최하였는데, 아시아에선 부산이 최초입니다. 이 총회에서 정해진 도핑 방침이 향후 5년간 올림픽, 월드컵 같은 세계 대회에 적용되는 만큼 매우 뜻깊은 행사입니다.”

오는 12월에 열릴 세계도핑방지기구총회에는 IOC위원, 각국 정부 대표단 등 2천여 명이 참가 예정이다. 손태욱 국장은 대규모 국제 행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TF를 꾸려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5년 만에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 준비도 한창이다. 우선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뽐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경기장을 개보수하고 클라이밍장, 테니스장 등을 짓고 있다. 50개 종목이 치러질 82개 경기장의 공식 승인을 6월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번 전국체육대회에는 18개국 약 1,500여 명의 해외동

포 선수단을 포함하여 4만여 명이 참가 예정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전국체육대회는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으며, 특히 모두의 이목이 집중될 개폐회식은 박칼린 예술감독이 총감독을 맡아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지난해 ‘부산세계탁구대회’를 발판 삼아 세계 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세계 속에 부산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월드컵처럼 규모가 큰 행사는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경제 효과도 큰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성비면에서 따졌을 때 탁구대회 규모의 세계 대회가 지역 경제에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탁구대회 기간 동안 먹거리, 숙박 등이 활성화되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시민의 피부에 닿는 정책

올해 하반기에는 굵직한 행사들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다 보

니 체육국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아울러 체육국은 이러한 대규모 사업 외에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도 차근차근 진행 중이다.

“5월을 ‘생활체육의 달’로 지정하여 생활체육 관련 대회나 축제와 연계한 행사를 만들려고 합니다. 생활체육을 더 많은 시민에게 알리는 기획이자 다른 지역의 동호인들도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태욱 국장은 체육 행사가 종종 체육인만을 위한 행사로 느껴져 아쉬울 때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체육인과 일반 시민이 한데 어우러지는 행사를 통해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체육 발전으로 이어졌으면 한다. 그리고 체육국은 부산시 내 체육시설을 꼼꼼히 분석하여 노후화 진행 속도에 맞춰 체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먼저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직야구장은 부산을 상징하는 곳 중 하나인데, 명성에 비해 시설 상태가 좋은 편이 아닙니다. 사직야구장 재건축은 시민들께 약

속드린 정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체육국은 ‘낙동강 슬로우 철인3종경기’, ‘투르 드 세븐브릿지 in 부산(가칭)’(자전거 대회) 개최, 러너를 위한 편의 시설 ‘리버오션 러너스테이션’ 설치, 파크골프장, 풋살장 등 인기 생활체육시설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체육시설 확충, 국민체육센터 증축 등 생활체육 전국도시에 걸맞은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대와 우려를 만족으로

손태욱 국장은 부산체육 발전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관련 단체들의 현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체육회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육국과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최고의 파트너로서 함께 협력해 부산체육 발전을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손태욱 국장은 체육회를 중심으로 단체들의 요구와 제언을 경청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것 또한 체육국의 주요 업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의 정책화는 물론이고, 지역 체육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역할도 충실히 해나갈 예정이다.

“체육이라는 분야가 행정 기구로 독립한 게 처음이다 보니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받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기대는 충족시키고, 우려하는 부분도 결국 만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손태욱 국장은 체육국 출범이 체육 관련 여러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감과 책임감을 안고, 역할을 잘 수행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부산의 철인들이 꿈꾸는 내일

부산광역시체육회 철인3종팀

철인3종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극기 스포츠의 대명사다.

국내 철인3종 태동기부터 함께한 박찬호 감독, 은퇴 후 복귀를 결심한 홍단비 선수와 한국 유일의 올림픽언 허민호 선수까지.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는 부산광역시체육회 철인3종팀을 만나보았다.

66 철인 3종 외길, 박찬호 감독이 그리는 밝은 미래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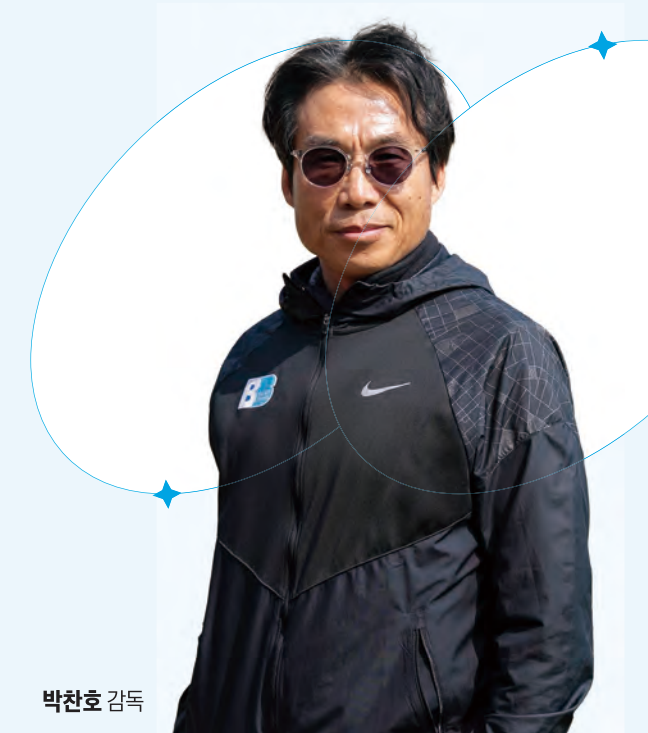
한국 철인3종의 살아있는 역사로 불리는 박찬호 감독은 1987년 국내 철인3종이 막 시작될 무렵 선수 생활을 시작해 국가대표로 활약했다. 이후 청소년 국가대표팀 감독을 거쳐 2005년 부산광역시체육회 철인3종팀 초대 감독으로 부임, 27년째 후진 양성에 힘쓰고 있다. 또한 국내 1호 철인3종 박사로, 연구와 저술 활동도 꾸준히 이어왔다.

“지도자라면 종목의 경기력을 좌우하는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향상시킬 훈련법을 꾸준히 연구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좋은 훈련법은 끊임없이 변하고, 새로운 과학적인 방법도 도입되기 때문에 지도자가 이러한 변화를 빠르게 캐치해 코칭에 반영하는 것이 선수들 기량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박 감독은 부산철인3종협회의 창단을 이끈 현 상임부회장으로, 철인3종 동호인 활동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국제지도자 연수에서 ‘관중과 동호인이 없는 스포츠는 올림픽에서 도태된다’는 말을 듣고 깊이 공감했어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은 서로 상생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협회는 시대 흐름에 발맞추어 철인3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오는 5월 화명생태공원 일원에서 개최하는 ‘슬로우철인3종 페스타’는 자연과 교감하며 생태계 보호의 가치를 실천하는 비경쟁 철인3종대회다.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를 통해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펼치는 것이 그의 목표다.



박찬호 감독

올해 우리나라 최초이자 유일한 철인3종 올림픽언 허민호 선수가 플레잉 코치로 팀에 합류했다. 박 감독은 이를 통해 동료 선수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며, 이론에 기반한 체계적인 트레이닝으로 다가오는 전국 체육대회를 대비하고 있다.

“모든 선수가 시상대에 오를 수 있도록. 주기화 원리와 개별 특성을 고려한 훈련법을 적용하고 있어요. 또 훈련량이 많은 만큼 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양섭취 전략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 감독은 올해 전국체육대회에서의 선전을 넘어, 2026년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과 2028년 LA올림픽을 목표로 철인3종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힘든 훈련에 열정적으로 임하는 선수들에게 항상 고맙습니다. 다가오는 대회에서 부상 없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저는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철인3종팀 파이팅!”

66 다시 한번, 한계를 시험하는 홍단비 선수 99

본래 수영선수였던 홍단비 선수는 20살에 철인3종으로 전향해 어느새 17년 차 베테랑 선수가 되었다.

“철인3종 경기는 템포가 긴 만큼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아요. 특히 수영을 마친 후, 빠르게 자전거를 타고 그룹을 형성해야 하는 순간이 중요한데, 트랜지션에서 제가 원하는 그룹에 딱 붙었을 때, 그 순간이 짜릿한 것 같아요.”

부산광역시체육회팀에 합류한 시점은 그녀의 인생에서도 큰 전환점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국체전이 연이어 취소되던 시기에 은퇴를 선택했고, 그사이 소중한 아이도 태어났다. 이후 선수 복귀를 결심했고, 육아와 운동을 병행하며 몸에 생긴 변화로 인한 어려움과도 마주해야 했다.

“출산 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수술을 해서인지, 처음엔 배에 힘이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점이 좀 힘들었어요. 지금도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조금씩 극복하며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복귀를 결심한 이유는 혼자만의 싸움에서 자신의 한계를 시험해 보고 싶은 호기심과 기대감 때문이었다.

“두 번이나 체전에 출전하지 못하고 은퇴를 하니 너무 아쉽고 후회가 남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질릴 때까지 해보고 싶어요. ‘이제는 운동을 그만해도 되겠다’는 후련한 마음이 들 때까지 계속해 보고 싶습니다.”



홍단비 선수

홍 선수는 박 감독에 대해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세심하게 코칭해 주며, 늘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응원의 말을 아끼지 않는다고 전했다. 팀 동료들 역시 그녀에게 잠시 잊었던 열정을 되살리는 자극제가 되어준다.

“예전엔 저도 더 열정적이었던 것 같은데, 점점 욕심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동료들이 계속 한계를 넘어서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어찌면 선수로서 당연한 일인데도 새삼 멋있게 느껴지더라고요. ‘나도 저릴 때가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에너지를 얻는 것 같아요.”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을 비롯해 매 경기, 그리고 가정과 육아까지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의 목표다.

“항상 지지해 주고 응원해 주는 가족들한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또 제가 팀의 맏이로서, 더 오래 운동한 만큼 후배들의 이야기도 더 들어주고 도움을 주고 싶는데, 마음만큼 해주지 못해 미안하기도 해요. 앞으로도 함께 힘내서 잘해보고 싶습니다.”

66 철인3종 레전드, 허민호 선수의 새로운 도약 99

“철인3종 종목의 유일한 기록을 세웠다는 자부심을 안고 다시 필드로 돌아왔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한 유일한 철인3종 선수인 허민호 선수는 이제 노장이라며 너털웃음을 지었다. 다섯 살, 에너지가 넘쳤던 그를 위해 부모님이 보낸 유아 스포츠단에서 시작한 철인3종은 그의 인생이 되었다. 그는 수영과 사이클, 달리기에서 어느 하나 특출나진 않지만, 전체적인 밸런스가 좋은 편이라고 자신을 평가했다.

현역 은퇴 후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건 예능 프로그램 ‘몽쳐야 찬다’에서였다. 운동에만 집중하려 방송 섭외는 모두 거절해 왔던 그가 방송 출연을 결정한 이유도 철인3종을 위해서였다.

“철인3종은 동호인 활동은 활성화되어 있지만, 엘리트 선수들에 대한 인지도는 정말 낮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나마 철인3종을 알리는 데 기여하고자 출연을 결심했죠. 또 제가 축구에 조금 소질이 있더라고요.(웃음)”

방송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철인3종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진 것을 실감했다고. 한편으로는 금메달이나 올림픽 출전보다 예능 방송을 통해 더 알려진 것은 조금 아쉽다며 쓴웃음을 삼켰다.

박찬호 감독과는 어린 시절부터 철인3종 운동을 통해 맺어진 인연으로, 주니어 대표 시절에도 많은 대회와 합숙을 함께했다. 허민호 선수는 박 감독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을 드러냈다.

“은퇴 후 2년 정도는 철인3종에 여한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커지더라고요. 바로 지도자의 길을 걷기에는 선수 생활에 대한 미련도 남고, 박 감독님 밑에서 차근차근 배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부산광역시체육회팀에 플레이 코치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플레이 코치로서 허민호 선수는 박 감독의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며, 자신의 경험



허민호 선수

을 바탕으로 조언을 더하고 있다. 자신이 팀에 합류하며 부산시 철인3종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 높아진 만큼, 흥그라운드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또 앞으로 부산팀이 아시안게임 메달을 획득하고, 나아가 올림픽 출전권을 따내는 선수를 배출하는 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안방에서 열리는 대회니까, 잘해야죠. 저희는 동호인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잘 준비하겠습니다. 철인3종 선수들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선수들이 만드는 행복한 배구 부산최강 여자배구부

경남여자중학교 배구부

“찬스! 찬스!” 구령이 울려 퍼지는 코트.

선수들의 동작 하나하나를 지켜보는 코치와 이를 악물고 달리는 선수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하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한차례 훈련 프로그램이 끝나자 강당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벚꽃향처럼 번진다.

도내 최강 여자배구부의 숨은 비법 ‘행복 배구’의 비밀을 들여다본다.



모교로 돌아온 지도자, 행복 배구의 전파

경남여자중학교 배구 코트에는 오랜 배구팬이라면 반가워할 얼굴이 있다. 바로 전 여자배구 프로선수이자 경남여자중학교 배구부의 지도를 맡고 있는 문지원 코치다. 경남여자중학교-경남여자고등학교를 거쳐 프로팀에 입단해 5년간 활약하다 호주 리그에서 14년을 뛰었던 그가 모교로 돌아와 후배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호주에서 살다가 잠시 한국에 들어올 일이 생겼어요. 그때가 15년도 더 전일 거예요. 그 무렵 모교인 경남여자중학교에서 배구부 지도자로 부임해달라는 제안을 받게 됐죠. 사실, 한국에 오래 머무를 생각은 없었어요. 호주에서 선수 생활을 오래 하면서 결혼도 했기 때문에, 호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교 배구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바꿨어요. 제가 부임했을 때는 부원이 고작 2명뿐이라 대회 출전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훈련조차 힘들었죠.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게 해준 배구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코치직을 수락했고 다음 해부터는 14명 정도의 선수들이 모여 대회를 준비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1년 더, 1년만 더, 이번에 입학한 제자들까지만... 하다 보니 어느덧 9년이 넘도록 배구부를 지도하고 있더라고요. 돌아보면 결국 이렇게 될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문지원 코치가 부임한 이후 배구부는 빠르게 이전의 기량을 회복했다. 수많은 입상은 물론, 2024년에는 각각 두 번씩의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비결로 문 코치는 ‘행복 배구’의 철학을 꼽는다.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엄하게 훈련하고 팀워크도 다져야하기 때문에, 선수들 입장에선 운동시간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힘든 시간에 최대한 집중하고 버틸 수 있으려면 외부의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선수들이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했어요. 훈련 때 힘든 만큼 훈련 외 시간에는 최대한 소통하고 선수들 간 우애도 다질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제가 선수 생활을 할 때부터 고집한 철학이고 다행히 성과로 증명되고 있네요.(웃음)”

견고한 수비력으로 함께 빛은

최고의 배구팀

여자배구는 랠리가 길게 이어지는 특징이 있다. 남자배구가 파워풀한 공격으로 순식간에 점수를 내는 것과 달리 여자배구는 공격과 방어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더욱 큰 박진감을 느끼게 한다. 경남여자중학교는 탁월한 수비력으로

상대의 진을 빼놓고 빈틈을 노리는 전략으로 최강 배구팀이 됐다.

“우리 팀의 강점은 탁월한 수비력이에요. 상대 공격을 봉쇄하고 랠리를 이어가다가 빈틈이 생기는 순간 공격수들이 스파이크를 꽂아 넣죠. 랠리가 긴 것은 여자배구의 특징이기도 한데, 우리 팀은 그런 특성을 잘 이용하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최적의 전략이지만 이를 실전에서 구현하려면 선수 개개인의 운동능력, 센스, 지구력이 따라줘야 하는데, 우리 선수들이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고 기량을 끌어올리는데 매진하고 있는 덕분에 좋은 성적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선수의 행복이 팀의 행복

늦은 저녁, 훈련이 끝나 비어있는 코트를 바라보며 문치원 코치는 배구부의 미래를 그려보곤 한다.

“‘행복 배구’를 추구하는 건 비단 성적을 위해서만은 아니에요. 선수들이 아직 미

성년자인 만큼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를 벌써 느끼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저 배구가 좋아서 운동을 시작한 아이들이 최대한 현재를 즐기게 해주고 싶어요.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혹여 진로를 바꿔 다른 길을 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배구를 하면서 배운 교훈들을 떠올리며 항상 행복하기를 바라요. 그게 지난 10년 동안 제가 배구부를 떠나지 않고 선수들과 동고동락한 이유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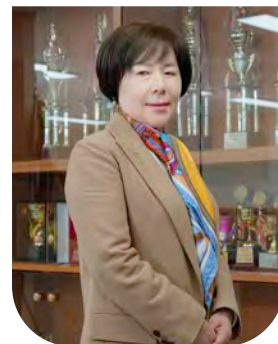
끝으로 그는 선수들에게 한마디 덧붙였다.

“우리 선수들, 힘든 훈련 견뎌내느라 고생이 많아. 성적의 좋고 나쁨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다만, 오늘 우리가 힘든 과정을 이겨냈기에 ‘후회’라는 괴로움을 겪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면 좋겠어. 2025년에 치러야 할 대회에 앞서서도 힘든 훈련을 소화해야 할 것이고, 때로는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주자. 코치님도 최선을 다할게. 파이팅!”



Mini Interview

경남여자중학교 이춘희 교장선생님



경남여자중학교 배구부는 1972년 창단해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팀입니다. 그간 배구부를 지도해주신 지도자분들과 교장선생님들, 그리고 코트에서 흘리는 땀을 아까워 하지 않는 선수들 덕분에 훌륭한 전통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4개 대회에서 각각 2회씩 우승, 준우승을 거머쥐면서 명실상부 최고 배구팀이 됐습니다. 대회 입상 소식을 들 때마다 기쁘지만, 성적 이상의 가치를 깨닫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선수들이 되길 바랍니다. 올해에도 여러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모습이 대견스럽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부상 없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운동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주고 있는 만큼, 교장으로서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 선수들 파이팅!

장수인 주장



경남여자중학교 배구부 주장을 맡고 있는 장수인입니다.

초등학교 때 태권도나 발레 같은 운동도 많이 했었는데, 코트 위에서 친구들과 함께 결과를 만들어가는 배구에 매력을 느껴 배구를 주종목으로 삼았고 지금까지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단체생활 하면서 소속감도 느끼고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어 행복합니다. 내년엔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될 텐데, 중학교에서의 마지막 해에 전관왕 달성을 목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으로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응원해주시는 가족과 함께 고생하는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배서빈 리베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6년간 배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비수 포지션이라 제가 실수하면 곧바로 팀이 실점하게 되는 만큼, 평소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도 많습니다. 하지만 배구는 저에게 0순위이자 1순위인 만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극복해서 팀에 꼭 필요한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팀 전략 전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부족한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문티아라 공격수



어릴 적부터 배구를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선수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팀 수비수들이 철통방어 해주는 덕분에 기회를 노려 득점을 할 수 있는데, 저 역시 수비가 필요할 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최근 리시브 훈련이나 체력 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팀이 최고였는데, 올해는 그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량 향상에 매진하겠습니다. 친구들과 지도자 선생님들이 신경 써주시는 덕분에 항상 재밌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다 같이 파이팅!



경남여자중학교 배구부 수상내역

- 2025. 3. 2025 춘계 전국 중고 배구 연맹전 우승(1위)
- 2024. 9. 2024 IBK 기업은행배 전국 중고 배구 최강전 준우승(2위)
- 6. 2024 익산보석배 전국 중고 배구대회 우승(1위), 지도자상
- 4. 제79회 전국종별 배구 선수권대회 준우승(2위)
- 2024 하늘내린 인재배 전국 중고 배구대회 우승(1위), 지도자상

자연과 함께 다채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는 여행 남구 & 북구

남구



유도, 축구 등 박진감 넘치는 경기 속으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위치한 부경대학교 체육관은 전국체전 유도 경기가 열리는 주 경기장이다.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당시 유도 경기장이었으며, 북한 선수의 세계 신기록과 함께 인공기가 국내에 처음 게양된 역사적인 장소로 주목받았다. 국제 대회 유치 경험과 함께 시설, 동선, 안전 시스템 등이 잘 갖춰져 있어 유도 경기 개최에 최적화된 공간이다.

축구 경기는 부경대학교 운동장, 동명대학교 축구장, 백운포체육공원 1, 2구장에서 나눠 열린다. 학교 기반의 편의성과 해안 인근의 넓은 필드가 장점이다.

볼링은 대연김스볼링장에서 진행되며, 쾌적한 환경과 밝은 조명

남구와 북구는 2025년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가 펼쳐지는 장소 중에서도 천혜의 자연 경관과 다양한 즐길 거리를 갖추고 있어 더욱 많은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관람한 뒤 남구와 북구의 명소까지 탐방한다면 평생 잊지 못할 진한 추억을 남기게 될 것이다.

자료 및 사진 제공: 부산광역시 남구청, 북구청

으로 경기 집중도가 높다.

역도는 남구국민체육센터 2관에서 개최된다. 전문 장비와 쾌적한 내부 공조시설을 갖춘 실내 경기장이다. 주짓수는 동명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다. 넓고 탁 트인 구조로 격투기 경기에 적합하다.

시원한 바닷바람 따라 떠나는 남구 여행

부산의 바다와 자연, 그리고 깊은 역사까지 품은 남구는 걷는 순간마다 새로운 감동을 선사하는 곳이다. 바닷바람 따라 펼쳐지는 절경과 이야기 속으로 떠나는 여행은 그 자체로 특별하다. 지금, 남구의 매력을 만나 보자.



1. 부산의 상징 '오륙도와 이기대공원'

오륙도는 부산 남구 앞바다에 위치한 여섯 개의 섬으로, 보는 각도에 따라 다섯 개로 보이기도 한다. 부산항의 상징이자 대표 명소로, 가장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는 곳이 이기대공원이다. 봄이면 수선화가 만개해 바다를 배경으로 한 꽃밭이 장관을 이루며 사진 명소로 인기다. 공원 아래 절벽에는 유리다리로 된 오륙도 스카이워크가 이어져, 짜릿한 바다 풍경을 즐길 수 있다.

2. 이기대 해안산책로, 부산을 품에 안고 걷다

이기대 해안산책로는 갈맷길과 해파랑길의 일부로, 자연 절경이 아름다운 약 4.7km의 코스다. 바위 절벽과 구름다리, 데크길을 따라 걷다 보면 구리광산, 돌개구멍 등 다양한 지질 경관이 펼쳐진다. 완만한 바위 해안길에서는 동해의 파도를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다.

3. 낭만 가득한 이기대 동생말 전망대

동생말 전망대는 이기대 해안산책로의 시작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광안대교와 마린시티, 해운대 야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낭만 가득한 전망대' 조형물이 있어 포토스팟으로도 인기도, 이기대 절벽과 해안 풍경이 어우러져 인상 깊은 장면을 선사한다.

4. 유엔기념공원,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

유엔기념공원은 한국전쟁 당시 희생된 유엔군 장병들을 기리는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다. 1951년 유엔군 사령부에 의해 조성되었고, 1955년 대한민국은 이 부지를 유엔에 영구 기증했다. 참전 21개국의 희생을 기리는 위령탑과 기념비가 세워져 있으며, 전쟁과 평화를 되새기는 장소로 전 세계인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북구

▶ 경기장
○ 관광 명소



해양스포츠의 메카에서 펼쳐질 뜨거운 승부

부산 북구 화명동에 위치한 화명수상레포츠타운은 제106회 전국체전에서 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 경기가 열리는 주 무대다. 낙동강을 품은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자리 잡은 이곳은 수상스키 슬라롬, 트릭, 점프, 베퍼풋, 웨이크보드 등 다양한 종목의 소화를 할 수 있는 수상 스포츠 경기장 중 하나다. 이곳에서는 이미 제30회, 제31회 전국남녀중별선수권대회와 부산시장배대회 등 굵직한 전국 규모의 대회가 다수 열렸으며, 아시아선수권대회 선발전 무대로도 활용된 바 있다. 수상스포츠 저변 확대와 유망 선수 발굴의 중심지로서, ‘해양스포츠 메카’라는 부산의 위상을 실감케 하는 상징적인 장소다. 축구 경기는 화명생태공원 C구장과 D구장에서 치러진다. 낙동강변의 넓은 자연 속에서 경기를 펼칠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이 장점이다.

볼링은 북구에 위치한 ‘레인보우스퀘어락볼링장’에서 열린다. 깔끔한 시설과 최신 장비를 갖춘 실내 경기장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하다.

도심 속 힐링, 북구 여행의 매력을 찾아서

바쁘고 지친 일상 속, 잠시 멈춰 자연과 함께 숨 쉬고 싶다면 부산 북구가 제격이다. 도심 가까이에서 자연의 정취와 생태 체험, 사계절 꽃 풍경까지 즐길 수 있는 북구는 이제 부산 시민은 물론 여행객들 사이에서도 ‘힐링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화명생태공원은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대표적인 복합 생태 관광지다.

1. 생태교육과 감성 피크닉이 함께,
‘도심 속 생태나들이’

매년 봄이면 화명생태공원에서는 ‘굿 포 웰니스(Good for Wellness) 생태여행’의 일환으로 ‘도심 속 생태나들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생태전문가와 함께 공원 곳곳을 탐방하며 자연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특히 가족 단위 참가자에게 인기가 높다. 참가자들은 연꽃단지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생태 교육과 놀이를 통해 자연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1인당 참가비 3,000원은 현장에서 기념품으로 환급된다. 예약은 북구 굿 포 웰니스 생태여행 홈페이지(www.bukgutour.com)에서 가능하다.

2. 봄을 물들이는 6만 5천 송이 튤립의 향연

화명생태공원은 봄이면 형형색색의 튤립이 만발하는 부산 속 플라워파크로 변신한다. 공원 진입부 약 4,000㎡의 부지에 식재된 6만 5천여 본의 튤립은 4월 초부터 중순까지 만개하며 방문객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벚꽃, 유채꽃, 코스모스, 핑크물리, 백일홍, 물억새까지 계절마다 바뀌는 풍경 덕분에 사계절 내내 색다른 감성을 선사한다.

3. 리버워크 따라 걷는 감동의 나룻길

운동을 겸한 힐링 코스를 찾는 이들에게는 감동나룻길 리버워크-금빛노을브릿지-화명생태공원 구간을 추천한다. 강변의 수상 보행교에서 펼쳐지는 시원한 낙동강 경치를 감상하며 자유롭게 코스를 선택할 수 있어, 워킹부터 러닝, 가족 산책까지 모두에게 사랑받는 북구 대표 트레킹 코스다.



부산 동계 스포츠의 쾌거! 빛나는 성과 속 해단식 마무리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부산선수단 해단 및 유공자 시상식

지난 3월 26일,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둔 부산선수단의 해단 및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지난 2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강원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부산선수단은 6개 종목에 250명(선수 172명, 지도자 및 임원 78명)이 참가하여 금메달 19개를 포함해 총 47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이는 역대 최다 메달 기록이며, 종합 점수 491점으로 18년 연속 종합 5위 및 6대 광역시 중 종합순위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오는 10월 부산에서 개최될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이번 동계체육대회에서의 선전은 부산선수단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추위가 물러가고 봄기운이 감도는 이날 해단식에는 장인화 부산광역시체육회장, 손태욱 부산광역시 체육국장을 비롯해 동계스포츠 종목 임원, 지도자, 선수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선수들의 빛나는 성과를 축하하고 격려했다.

시상은 종합입상, 소속 단체장, 지도자, 입상 선수, 감투상, MVP

순으로 진행되었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단체와 선수들을 비롯해,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한 지도자들에게 표창패와 표창장이 수여됐다. MVP(최우수선수)는 스키 크로스컨트리 남자중학부 클래식 5km, 프리 10km, 복합, 스프린트 1.2km, 20km 계주에서 금메달을 휩쓸며 5관왕을 달성한 전준상(신도중) 선수에게 돌아갔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종합입상 단체, 메달리스트 및 지도자들에게 성과수당과 상품을 지급하고, 부산을 빛낸 선수들의 헌신과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장인화 부산광역시체육회장은 “동계스포츠의 불모지였던 부산이 이제는 동계스포츠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며 “우수 선수 육성과 훈련 환경 조성 등 동계스포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수상자 명단

종합입상(종합 3위)			
연번	구분	단체명	회장
1	종합 3위	산악연맹	최재우
2	종합 3위	부산광역시스키협회	박재영

소속단체장(1위-개인)							
연번	종목	부별	메달	소속	성명	단체장	지도자
1	빙상	남고	금1	만덕고	김아론	황선영	김태현
2		여일	금3	부산광역시체육회	이의진	-	윤철호
3		남중	금4	신도중	전준상	최동철	김영규
4	스키(알파인)	남일	금1	부산광역시체육회	정종원	-	윤철호
5		남중	금4	부산광역시스키협회	최범근	박재영	이기홍
6		여고	금4	부산진여고	허부경	신경선	서정륜

소속단체장(메달 입상종목-단체)							
연번	종목	부별	메달	소속	성명	단체장	지도자
1	크로스컨트리	남중	금1	신도중	전준상 등 4명	최동철	김영규
2		여초	은1	광남초	오신비 등 3명	김혜옥	손현진
3		남일	동1	부산광역시체육회	정종원 등 3명	-	윤철호

최우수선수

MVP	
성명	전준상
부별	남중
소속	신도중
성적	종목
	스키 크로스컨트리
메달	
금5	



감투상

상위 입상의 건인 역할을 한 선수	
소속 및 직위	성명
부산광역시스키협회(금4)	최범근
부산진여고3(금4)	허부경
부산광역시체육회(금3, 은1)	이의진
정관초6(은5, 동1)	서승민





아픈 만큼 더욱 성숙해지다 1950~60년대의 전국체육대회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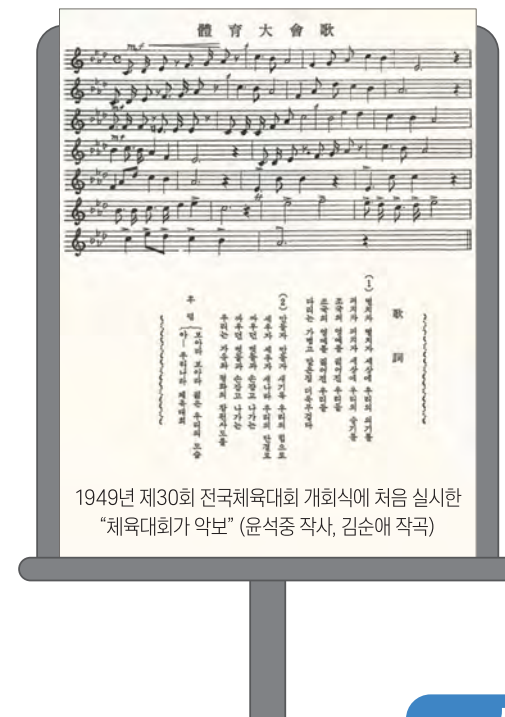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의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전쟁과 혼란 속에서도 국민의 의지를 하나로 모으고, 무너졌던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도약의 발판이 되었다.
탄탄한 경기력보다도 절박한 삶의 현장에서 움튼 뜨거운 열정이 더 깊은 울림을 남긴 시기였다.

자료 출처: 김상규, 2007. 8., 『전국체육대회의 발전과정을 통해 본 체육사적 의의』,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대한체육회 공식 블로그
사진 제공: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공식 블로그



1951년 제32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 참가한 광주시내여중 연합합창단



1949년 제30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 처음 실시한 “체육대회가 약보” (윤석중 작사, 김순애 작곡)

전쟁의 폐허 위에 다시 피어난 체육의 불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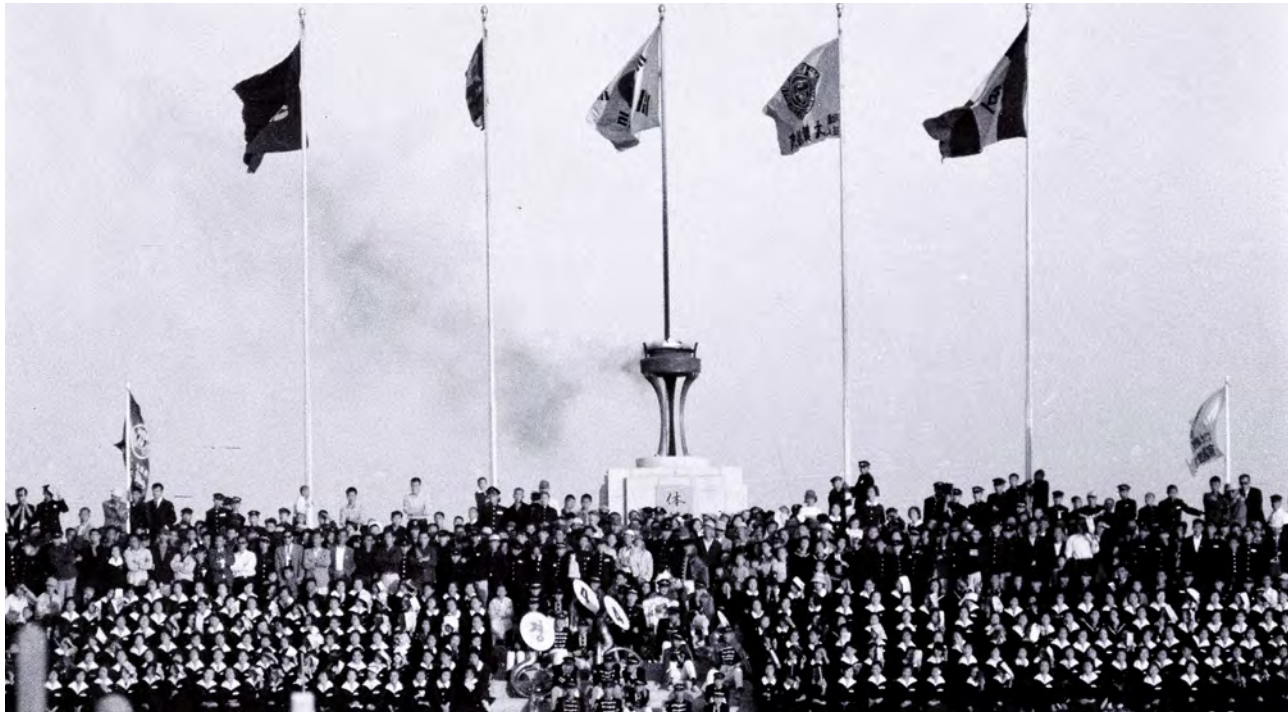
1950년 6·25 전쟁은 전국체육대회조차 중단시켰다. 그러나 체육인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전쟁의 포화가 채 가시지 않은 1951년, 광주의 들판에서 다시금 대회가 열렸다. 총성과 연기 속에서도 몸을 던져 달리고 던지며, 그들은 단순히 경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다시 희망을 부린 것이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세계는 감동했고,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세계 각국에서 격려가 쏟아졌다. 그것은 단순한 대회가 아니라, 전쟁을 뚫고 일어난 사람들의 용기였다.
1952년 서울 성동운동장에서 열린 대회는 전쟁 중 최대 규모의 행사였다. 전국 각지에서 특별열차로 모여든 젊은이들은 피난살이 속에서도 훈련을 이어온 선수들이었다. 이들은 폐허 속에서도 20개 종목에서 최선을 다하며 목숨보다 뜨거운 승부를 펼쳤다.
이듬해인 1953년, 서울에서 열린 제34회 대회에는 재일동포 선수단까지 참가해 감격을 더했다. 이 대회에서 훗날 스포츠 영웅으로 성장할 선수들이 속속 등장했다. 그들은 경기장에서 흘린 땀으로 민족의 희망을 새겼고, 이 땅의 체육은 그렇게 부활하고 있었다.

세계를 향한 발걸음, 체계로 이어지다

전쟁이 끝난 뒤, 대한체육회는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대회헌장과 심판규정이 마련되며 전국체육대회는 보다 공정하고 조직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954년 마닐라 아시안게임에서는 3위에 올랐고, 1956년 멜버른 올림픽, 1958년 도쿄 아시안게임, 토리노 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세계 무대에서도 눈부신 활약이 이어졌다. 불과 전쟁 3년 만에, 한국은 아시아 강국의 자리를 차지하며 놀라운 부활을 이뤄낸 것이다.
1956년, 성화 릴레이가 처음으로 도입된 제36회 전국체육대회는 한국 체육사에서 전환점이 된 대회였다. 강화도 마니산에서 채화한 성화가 서울운동장에 도착해 점화되던 순간, 그 불꽃은 단순한 화염이 아니라 한국 스포츠의 부활과 도약을 상징하는 희망의 빛이었다. 특히 보스턴 마라톤 우승자 서윤복이 최종주자로 나서 더 큰 감동을 자아냈다. 온 국민은 하나 된 마음으로 성화의 불꽃을 바라보았다.



1951년 제32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식장에 정렬한 시도 선수단



1963년 전주에서 열린 제44회 전국체육대회

지방에서 타오른 체전의 불꽃, 지역의 희망이 되다

1957년, 부산에서 처음 지방 순회 개최가 이루어졌다. 지역 주민들은 손수 깃발을 들고 선수단을 환영했고, 성화봉송과 매스게임 등 다채로운 행사에 시민들의 환호가 넘쳐났다. 전국체전은 이제 서울만의 행사가 아닌, 전 국민의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1960년, 대전에서 개최된 제41회 대회는 대규모 공설운동장이 새롭게 건설되어 개최되었다. 그러나 인프라는 아직 부족했다. 참가자들과 가족들, 임원, 관람객까지 거의 만 명에 이르는 인파는 숙소를 찾지 못해 여인숙을 전전해야 했다. 이 경험은 지방 개최의 어려움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었다.

하지만 1963년 전주에서 열린 제44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놀라운 해결책이 나왔다. 전북체육회는 민박을 공식적으로 도입해 부족한 숙소 문제를 해결했고, 이를 통해 '인정 체전'이라는 멋진 이름을 얻게 되었다. 시민들은 선수들을 가족처럼 맞이했고, 이 전국체전은 그 어떤 기록보다도 따뜻한 기억으로 남았다. 한편, 이 대회부터는 대통령 배가 신설되며 경쟁이 한층 치열해졌다.

감동의 연출, 민족의 염원을 담다

1965년 광주, 제46회 전국체전에서는 지방 최초로 3,000명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종합경기장이 들어섰다. 그러나 개막 당일, 인파 통제의 실패로 14명의 관중이 안타깝게 희생되며 전국체전 역사상 가장 뼈아픈 사건으로 남았다. 그럼에도 전국체전은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를 이어갔다. 희생은 체육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되물게 했고, 그 아픔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교훈이 되었다.

1966년 서울 대회부터는 표어와 입장식, 카드섹션이 도입되며 대회의 상징성과 미적 감성이 더해졌다.

한성여고 학생들이 수천 장의 색판을 들어 연출한 카드섹션은 관중의 탄성을 자아냈고, 전국체전은 단순한 경기를 넘어 하나의 예술적 감동이 되었다.

그리고 1969년, 전국체전 50주년을 기념하는 제50회 대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전국을 돌며 이어진 성화, 이북 5도 대표단의 상징적인 입장, 수천 명의 학생이 그린 대형 카드섹션... 이 모든 장면은 분단된 현실 속에서도 민족이 하나 되어 가슴 깊이 간직할 수 있는 감동을 선사했다. 체육은 이념도, 정치도 아닌, 사람과 사람을 잇는 힘이라는 것을 다시금 보여준 순간이었다. 전국체전은 그렇게 시대의 거울이 되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는 등불이 되었다.



제50회 전국체전 각 시도 선수단 서울역 도착 환영

다시, 오늘을 위한 기록으로

1950~60년대 전국체육대회는 단지 과거의 역사가 아니다.

그 시절, 경기장마다 울려 퍼진 환호와 박수, 선수들이 흘린 땀과 눈물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스포츠 문화의 밑거름이 되었다. 폐허 위에 쌓은 정성과, 국민이 함께 이룬 감동의 순간들은 오늘날의 한국 체육을 가능하게 한 귀중한 유산이다. 그 기록을 되새기는 일은, 오늘 우리가 달리는 길에 더 깊은 숨을 불어넣는 일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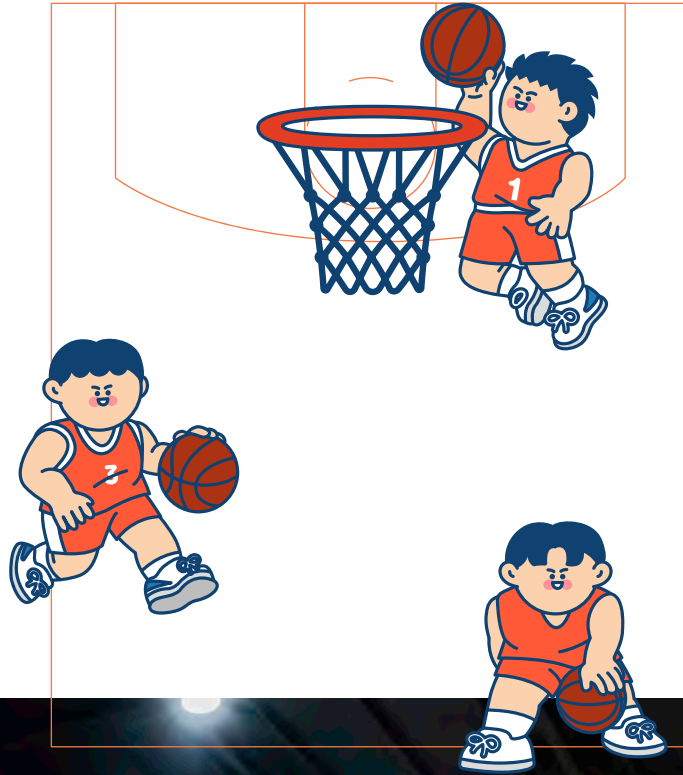
그들은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서 가능성을 일궈냈고, 우리는 그 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그때의 체육은 삶을 지탱하는 희망이었고, 오늘의 체육은 그 정신을 이어받아 사회를 잇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체전을 기억함으로써, 단순히 과거를 기리는 것을 넘어 미래를 준비하는 힘을 얻는다.

농구를 향한 열정,
열정을 통한 승리

The Grit Basketball

0.1초를 다투는 스포츠인 농구의 매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협력을 통해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일 것이다. 농구에 대한 열정으로 똘똘 뭉친 ‘The Grit Basketball’의 이야기를 통해 생생한 농구의 현장을 만나 보았다.



‘The Grit Basketball’ 소개 부탁드립니다.

2020년부터 활동을 시작해 농구를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단체입니다. 이름을 ‘The Grit’으로 한 이유는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투지, 열정 등 농구 정신을 잘 표현한다고 생각해서 입니다. 이를 운영 모토로 삼아 구성원들이 중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도전하며, 결과에 상관없이 값진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구성원들의 연령대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수업은 유치부에서부터 학생, 성인부 등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의 조건과 체력에 맞춰 유연하게 진행합니다. 대표팀이나 엘리트 선수부는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시합에서 즐기는 마음으로 농구를 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훈련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포지션은 본인 의사를 반영하되, 연령별로 운영되는 수업 특성에 따라 일부 조정 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먼저 충분한 워밍업으로 수업을 시작합니다. 이후에는 슈팅, 패스, 수비, 드리블 스킬 등 농구를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수업 주제를 세분화해서 지도합니다. 지도자들은 학생들의 컨디션을 잘 체크하고, 매 수업마다 조금씩 변화를 주며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큰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들었습니다.

‘2025 부산광역시장배 생활체육농구대회·전국생활체육대축전 부산대표 선발전’에서 초등부 학생들이 ‘U-12’, 지도자들이 ‘3x3’ 부문에서 각각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특히 ‘U-12’ 경기의 경우 ‘The Grit’이 4회 연속 결승전에 진출했다는 점이 더욱 뜻 깊었습니다.

대회 준비는 2달 정도 했는데요, 2주마다 연습 경기 및 시합을 통해 여러 전술을 적용하며 실전 감각을 향상시켰습니다. ‘연습은 실전 처럼, 실전은 연습처럼’이라는 말도 있듯이 선수들에게 연습한 대로만 보여주자고 말하며 긴장을 풀어줬습니다. 강팀이 많아 우승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연습 때 선수들이 보여준 투지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 자신 있었습니다.

오는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서 초등부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부산을 대표해 출전 예정이라 현재 열심히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구 실력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이 가장 필요할까요?

수업 외 스스로 연습을 충분히 더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학생이 수업 시간에 슈팅, 드리블 등 스킬에 대해 지도자로부터 충분히 들었어도, 이를 자기 것으로 온전히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연습을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U-12팀 문건

‘2025 부산광역시장배 생활체육농구대회’ U-12에서 우승해 정말 기쁩니다. 우리 팀이 그동안 열심히 땀 만큼 흘린 만큼 많았기에 가능한 결과였고, 노력의 대가를 받은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서로를 믿고, 하나 되어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기에 결승전 승리가 더욱더 기억에 남습니다. 농구는 0.1초에도 승패가 갈릴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공을 드리블, 패스하고 슛했을 때 짜릿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요. ‘The Grit’에서 팀원들과 협력해 운동하고 팀워크와 우정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제가 배운 점이 있는데요, 농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실력’보다는 경기에 임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U-12팀 장인율

부산에 농구를 잘하는 팀이 많아 대회 우승까지 하게 될 줄은 예상 못 했기에 더 기쁘고 행복합니다. 초등부 규칙이 바뀐 부분이 있어 여기에 집중을 많이 했고, 부산 대표로 전국대회에 나갈 수 있는 기회라 평소보다 더 진지하게 임했습니다. 농구를 통해 어떤 일을 꾸준히 하는 태도와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 좋습니다. 땀 흘려 농구하는 동안 즐겁고, 끝나면 스트레스가 완전히 해소되는 기분입니다. 팀원들이 서로 협력해나가는 과정에서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공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재빨리 잡아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점은 농구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The Grit Basketball 수상내역

2024년

수원시협회장배 U-12 우승
김해 리그 U-10 준우승
전국유소년 농구 제천 스포브리그 U-10 우승
부산시장기배 U-10 우승

부산 리그 U-10 우승
결초보은배 농구대회 U-12 준우승
후쿠오카 제1회 그루비컵 U-11 우승, U-12 준우승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유소년 농구대회 U-12 우승
제천시 전국유소년 생활체육대회 U-11, 12 준우승
제27회 부산광역시장배 생활체육 농구대회 겸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선발전 선발전 U-12 우승



부산스포츠과학센터, 혁신적인 스포츠과학으로 성과 극대화

제5기 부산스포츠기자단 박은지

부산스포츠과학센터는 부산지역 학생 및 일반 전문선수를 대상으로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과학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2022년 신규 지역스포츠과학센터 운영자 선정”사업에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선정되어 국비와 시비 예산을 지원받아 2023년 2월 9일 개관을 시작으로 부산지역 전문선수들에게 체력측정, 분석, 운동처방을 통해 개인 및 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부산스포츠과학센터는 WEB 기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체력측정, 분석 후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체력측정 분석 및 평가, 데이터에 기반한 종목별 훈련 프로그램, 선수영양프로그램, 심리기술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025년 부산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방문한 부산스포츠과학센터에서 센터장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부산스포츠과학센터가 스포츠과학의 체계적인 데이터로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의 전반적인 성장을 도우며 최고 수준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방법을 제공하여 선수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부산스포츠과학센터가 선수들과 동반성장하리라 기대한다.



MINI INTERVIEW

Q 부산스포츠과학센터가 하는 일은?

부산스포츠과학센터는 국가대표 선수에게 한정되었던 스포츠과학지원 시스템을 적용하여 체력측정 및 과학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종목별 맞춤형 운동처방과 체계적인 훈련프로그램 제공뿐만 아니라 심리, 영양 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부산지역 선수들의 경기력 극대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설 스포츠헬스케어센터와의 선수환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기술 강화, 부상예방 및 회복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계체전, 소년체전, 전국체전 등 대회 현장에서 스포츠과학 장비를 활용한 회복 처치 등 컨디셔닝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도자, 선수, 학부모가 함께하는 스포츠과학교실 운영, 스포츠관련 학과 학생들의 견학 및 실습을 통해 현장중심의 스포츠과학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Q 부산스포츠과학센터 현황은?

본 센터는 스포츠 생리학·역학·심리학 등 분야별 박사급 연구진과 측정요원, 전문트레이너 등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근력, 근지구력, 평형성, 유연성 등 기초체력 측정 장비와 운동부하검사, 등속성근관절기능검사, 무산소성파워 검사, 폐활량 검사 등 전문체력 측정 장비 및 운동역학 측정 장비 영상분석, 족저압분석, 근전도 측정 등을 위한 29종의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Q 부산스포츠과학센터 이용 대상자는?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 및 스포츠클럽 전문선수반, 학교스포츠클럽 소속선수들을 대상으로 체력 측정과 운동 처방 및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 부산스포츠과학센터의 향후 목표는?

부산스포츠과학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과학지원이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주고 싶으며, 선수들이 각자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체력만 뛰어나다고 해서 결코 경기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스포츠과학센터에서는 과학적 분석과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체력, 심리, 기술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융복합 지원을 통해 선수들의 퍼포먼스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센터 연구진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나아가 학생선수 지원을 강화하여 꿈나무선수 조기 발굴 및 육성을 통해 부산지역 미래체육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부산지역 선수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센터 연구진들은 지원을 확대할 것이며, “선수, 지도자가 믿고 찾는 센터! 희망이 함께하는 센터!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는 센터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임랑해수욕장에서 이어진 세븐비치 어싱 챌린지

제5기 부산스포츠기자단 금광진

작년 ‘맨발 걷기’ 열풍을 몰고 온 부산은 이제 대한민국 1호의 ‘맨발 도시, 부산’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다. 작년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열린 ‘맨발 걷기 좋은 도시 부산’의 선포식에 이어 2025년 3월 22일에는 임랑해수욕장에서 올해 첫 ‘세븐비치 어싱 챌린지’가 개최되었다.

행사 당일, 동해선 광역전철을 이용해 임랑해수욕장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좌천역부터 ‘세븐비치 어싱 챌린지’ 안내판과 안내요원이 배치되어 있어서 행사 장소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임랑해수욕장에 도착! 선착순 2,000명의 참가 접수는 일찍 마감되고, 현장에서는 맨발 걷기에 동참하는 형식이었는데도 제법 많은 시민이 행사에 참여하였다. 이처럼 현장에서는 부산의

맨발 걷기 열풍이 얼마나 뜨거운지 실감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생활 속에서 맨발 걷기 같은 체육을 실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챌린지 시작 전에 건강 체험 부스에서는 체성분과 뇌파·맥파 검사를 무료로 진행하여 눈길을 끌었으며, 야외무대에서는 흥겨운 공연과 이벤트가 진행되어 시민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물했다. 임랑해수욕장 백사장에 마련된 등록 부스에서 사전 접



수한 본인 확인 절차를 마친 후 손목 띠와 신발주머니를 받으면 챌린지 참여 준비 완료.

이번 챌린지는 연인, 동호회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의 참여가 많아 훈훈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그리고 부산의 마스코트 ‘부기’가 응원해 주는 포토존을 비롯하여 여러 즐길 거리가 가득했다. 참가자 모두에게 생수, 신발, 가방, 배지가 기념품으로 제공되었다.

‘임랑해수욕장의 세븐비치 어싱 챌린지’는 임랑해수욕장 입구에 설치된 시작점에서 임랑항방파제등대 입구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왕복 1.2km 정도 거리에 1~2시간 정도 소요되는 코스였다.

푸른 하늘과 파란 바다를 보며 보드라운 모래를 맨발로 밟는 시간은 참가자들에게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연인, 가족, 친구들과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며 천천히 걷는 ‘임랑해수욕장의 세븐비치 어싱 챌린지’는 일상의 스트레스까지 날려주었다.

맨발로 느끼는 모래와 바다의 촉감은 1시간이 넘는 챌린지 시간을 힘들지 않게 하였고 오히려 활기를 주었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참가자들은 코스를 한 번 더 왕복하기도 하였다. 세븐비치 어싱 챌린지 도착점에서는 손목 띠를 반납한 후, 스크래치형 경품 추첨 이벤트를 통해 행운을 얻는 시간도 있었다.

2025년이 시작되는 새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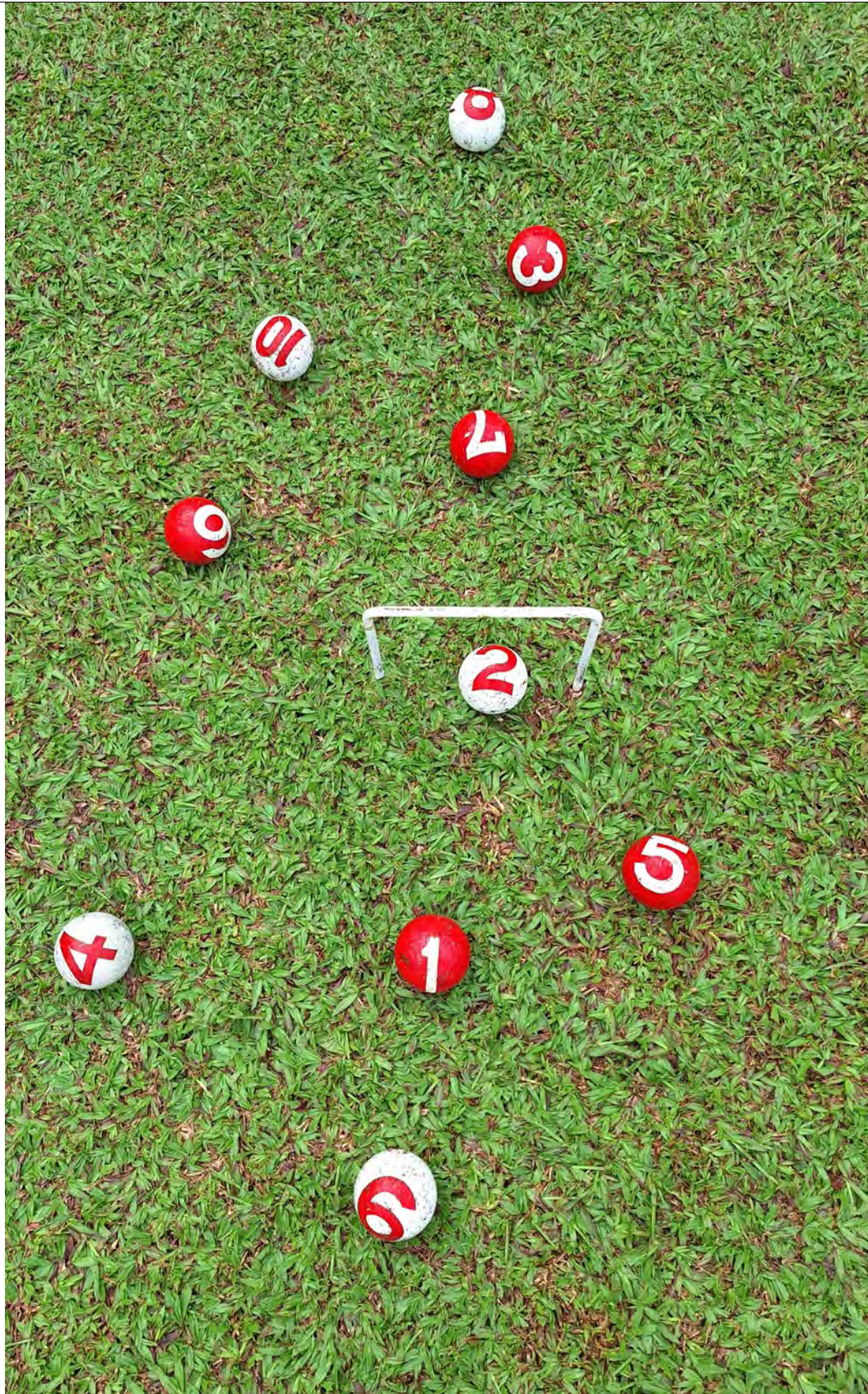
임랑해수욕장 맨발 걷기로 ‘2025년 세븐비치 어싱 챌린지’도 시작을 알렸다. 오는 5월, 일광해수욕장에서 개최될 세븐비치 어싱 챌린지에 참여하여 건강도 챙기고 부산의 바다를 흠뻑 느껴보는 건 어떨까.



하나 되는 단결력과
섬세한 컨트롤,
상대를 꿰뚫는
전략의 묘미

게이트볼

다섯과 다섯이 마주 선 필드,
정교한 타구와
날카로운 전략이 격돌한다.
서로에게 활력을 선사하는
동반자들의 우애는 덤.
팀워크와 매너의 게임
게이트볼에 대해 알아보자.



게이트볼의 기원과 발전

막대기로 공을 치거나 일정 지점을 통과시키는 형태의 경기는 동서양을 불문하고 오래전부터 그 기록이 남아있다. 한국의 격방, 중국의 추환, 서양의 크로케 등이 그 예다. 게이트볼은 그중에서도 크로케에 기원을 두고 있다. 1300년대 남부 프랑스 농부들의 놀이에서 시작된 크로케는 버드나무 가지를 구부려 철주문(鐵柱門)을 만들고 갈고리가 달린 나무 지팡이로 공을 철주문에 통과시키는 놀이였다. 프랑스에서는 페일 메일(Paille maille), 펠멜(Pall mail)로 불리다가 17세기 이태리, 스코틀랜드 등 유럽 여러 나라에 전파되어 크로케라는 명칭이 붙여졌다.

이후 1947년, 일본의 스즈키 카즈노부(鈴木和信)가 크로케의 룰을 변형했다. 2차 대전 패전 후 어린아이들을 위해 쉽고 건전한 놀이를 창안하기 위해서였다. 나무가 많은 홋카이도(北海道)의 특성상 주로 나무로 용구를 만들었고 이렇게 만들어진 경기에 ‘게이트볼’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1948년 3월, 아사이가와시의 특허청에 용구의 실용인산을 등록함과 동시에 ‘게이트볼 경기의 요령 및 규칙’이라는 소책자를 발행하며 게이트볼은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최초의 게이트볼 단체는 ‘일본게이트볼협회’로 1953년, 창시자인 스즈키 카즈노부의 주도로 결성됐다. 같은 해 최초의 전국대회인 동경도지사배 일본게이트볼선수권대회가 30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기도 했지만 당시에는 홋카이도 지방에서만 성행했다.

그러다 1964년 도쿄 올림픽 이후 일본 사회 전반에 생활체육 열풍이 일면서 쿠마모토 현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게이트볼 단체가 구성되기 시작했다. 과격하지 않은 경기 특성 덕분에 주로 노년층에서 큰 인기를 구가했고 1980년대 초부터 ‘일본게이트볼연합’이 설립되며 체계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다.

1984년 12월 21일, 일본 문부성으로부터 ‘재단법인 일본 게이트볼연합’의 설립이 인가됐고 이듬해인 1985년 3월

20일에는 통일된 게이트볼 경기규칙이 발간되며 일본 전역에 게이트볼이 보급됐다. 같은 해 9월에는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미국(하와이), 브라질 등 6개국이 ‘세계게이트볼 연합회’를 설립, 1986년 8월에 ‘제1회 세계선수권대회’를 개최했다.

현재는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미국(하와이, 남캘리포니아), 캐나다 등 20여 개 국가가 세계 연합에 가입되어 있다.

한국의 게이트볼

게이트볼이 공식적으로 한국에 전래된 것은 1980년대 초반이지만 이전에도 여러 경로로 게이트볼이 전래됐음을 알 수 있다. 1956년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의 김명조 교수가 강습회를 실시했다는 기록이 있고 1959년 서울 진명여고의 졸업사진첩에는 교사들이 게이트볼을 즐기는 사진이 실려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게이트볼의 인기가 일본 내에서도 그리 크지 않았고 우리나라도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아 본격적인 보급이 힘든 상황이었다.

이후 1980년대 초반, 정부가 스포츠입국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체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다. 정부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고 체육부 신설,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씨름 등을 출범했고 경제 성장으로 국민들의 여가 활동 참여도가 높아졌다.

1980년대 초반 게이트볼의 발원지인 일본에서 게이트볼이 성행하기 시작해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 잡았고 그 영향력이 미치면서 한국에도 본격적으로 게이트볼이 보급되기 시작했다. 경주, 대구, 부산 등지로 보급된 게이트볼은 ‘한·일 게이트볼 보급협력회’와 대구 ‘오구협회’, ‘한국게이트볼 보급회’, ‘한국게이트볼협회’ 등을 거쳐 1991년 ‘생활체육전국게이트볼연합회’가 출범하며 본 궤도에 올랐다.

1998년 협회가 청소년 대회, 초·중고 교원강습회, 여성게이트볼대회, 대한게이트볼선수권대회 등을 개최하며 게이트볼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을 시작했고 현재는 60만 명 이상이 즐기는 생활체육 중심종목으로 성장했다.

How to Play

- 코트 규격** 코트는 바깥라인으로 구획, 장애물이 없는 직사각형의 평면으로 한다.
- 필드** 코트 내의 평면을 필드로 칭하며 필드는 이너필드와 아웃터필드로 구분한다.
- 이너필드** 이너필드는 세로 15m, 가로 20m의 직사각형으로 하고 둘레를 인사이드라인으로 구획한다.
- 인사이드라인은 5cm를 기본 폭으로 하고 식별이 쉬운 색으로 한다.
 - 이너필드의 각 변은 15m 변을 시작으로 시계 반대방향으로 제1라인~제4라인으로 한다.
 - 1라인과 4라인이 교차하는 지점을 1코너로 하고 시계 반대방향으로 각각 2, 3, 4코너로 한다.
- 아웃터필드** 아웃터필드는 이너필드의 바깥쪽의 50cm 이상 1m 이내의 범위로 정하고, 그 외연을 아웃사이드라인으로, 내연은 인사이드라인으로 각각 구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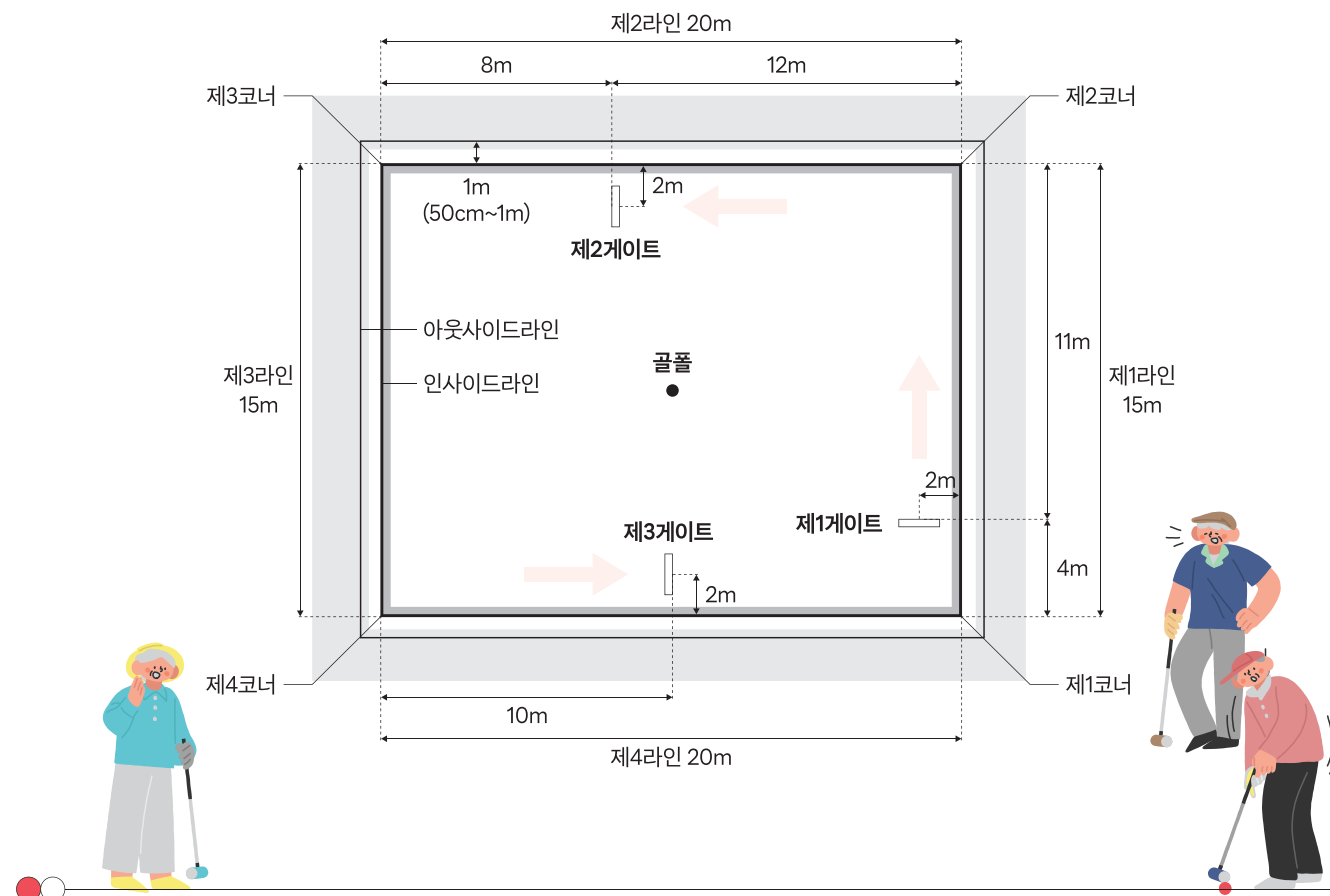


스틱

- 스틱은 헤드 및 샤프트로 된 T자형으로 한다.
- 헤드는 원기둥을 기본으로 하고 샤프트와 평행한 양 끝의 평면을 페이스, 샤프트와 수직으로 교차하는 측면을 사이드페이스라 한다.
 - 페이스는 단경 3.5cm 이상, 장경 5cm 이하로 한다.
 - 사이드페이스는 길이 18cm 이상, 24cm 이하로 한다.
 - 샤프트는 그립을 포함하여 길이 50cm 이상으로 한다.

볼

- 볼은 합성수지의 균일한 구체로 직경 7.5cm, 중량 230g으로 하고 홍색 5개, 백색 5개 합계 10개로 한다.
 - 홍색 볼에는 [1][3][5][7][9]의 홀수 번호를 백색으로 표시한다.
 - 백색 볼에는 [2][4][6][8][10]의 짝수 번호를 홍색으로 표시한다.
 - * 스틱과 볼은 대한게이트볼협회가 공인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팀 구성

팀은 5명의 경기자와 3명 이내의 교체 경기자로 구성하고 그중 1명을 주장으로 한다.
팀에는 전임감독 1명을 둘 수 있다.

득점과 승패

1게이트를 통과한 경우 득점은 1점, 2게이트를 통과한 경우 2점, 3게이트를 통과한 경우 3점으로 한다.
완료가 성립했을 때 득점은 2점을 추가하여 5점으로 한다.
경기종료 시 경기자의 득점을 팀별로 합산하여 총 득점이 많은 팀이 승리한 것으로 한다.

동점 시 승패의 결정

동점 시에는 다음 득점 내용에 따라 승패를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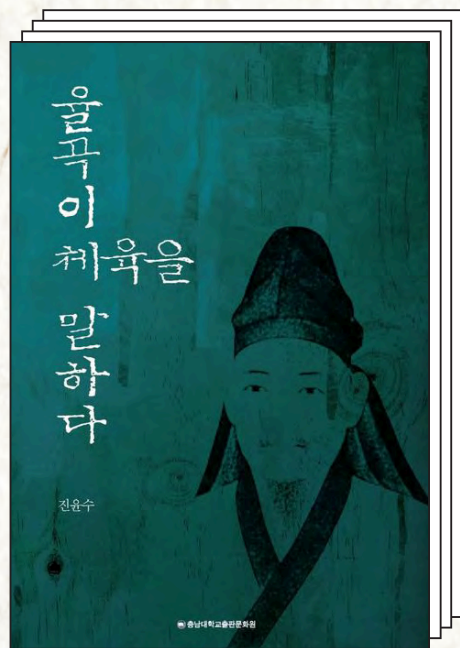
1. 완료를 성립한 볼의 수가 많은 팀
2. 제3게이트를 통과한 볼의 수가 많은 팀
3. 제2게이트를 통과한 볼의 수가 많은 팀

위 순서에 의거해 승패가 결정되지 않은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결승 게임을 진행한다.

1. 경기종료 시 출장했던 경기자가 1~10번까지의 볼을 타구해 1게이트를 통과시키고, 그 볼이 많은 팀이 승리한 것으로 한다.
2. 1항에 의해서도 승부가 나뉘지 않은 경우, 1번과 2번 타순 경기자에 의해 1게이트 통과와 성립을 겨루어 통과를 성립시킨 타순 경기자의 팀이 승리한 것으로 한다.
3. 위 방법으로도 승패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승패를 결정짓지 않고 무승부를 선언할 수 있다.

율곡 이이에게 배우는
스포츠 윤리 의식

율곡이 체육을 말하다



저자 **진윤수** / 출판사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율곡은 ‘입지의 리더십’을 추구한 훌륭한 리더였다.”

율곡이 본 신체 존중사상은 유학의 신체사상과 마찬가지로
신체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체이므로 손상을 예방하고,
잘 보전하는 것이 효의 시종*(始終)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신체 존중사상은 체육의 근본 목적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시종: 처음과 끝을 아울러 이르는 말

대한민국은 1988 서울올림픽을 시작으로 2002 한일월드컵,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까지 세계 4대 스포츠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스포츠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 현장에서는 비윤리적인 행태가 만연하며, 스포츠맨십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입시비리, 폭력,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 조직 사유화 등 이른바 ‘스포츠 4대 악’이 끊임없이 발생하며 스포츠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부르는 이유는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짜고 치는 드라마’가 될 때도 많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윤리적인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스포츠 윤리의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우선이다. 진윤수 교수는 그 해답을 율곡 이이의 사상에서 찾았다. 그는 율곡의 사상을 깊이 연구하며, 이를 스포츠 현장에 접목한다면 한국 전통 체육사상을 되살려 스포츠 윤리의식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율곡은 ‘입지(立志)’, 즉 뜻을 세우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다. 그는 ‘배우는 자는 먼저 뜻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경문>, <격몽요결>, <학교모범>, <성학집요> 등 율곡의 교육 관련 저서에서도 ‘입지’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펼치고 있다. 또한 <격몽요결>에서는 ‘사무사 무불경(思無邪 毋不敬)’, 즉 ‘간사한 일을 생각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 공경하라’는 가르침을 제시한다. 율곡은 이 두 구절을 평생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것을 권하며, 벽 위에 붙여두고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곧 ‘무자기(毋自欺)’, 즉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뜻으로 연결된다. 자신을 속이는 행위로는 결코 발전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율곡의 학문을 연구해 온 진윤수 교수 역시 제자들에게 ‘공부하는 선수’로서의 바른 마음가짐을 강조해 왔다. 학업과 운동, 모든 일상생활에서 남에게 보여주지 위한 겉치레보다는, 자신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스포츠 애호가들과 선수들에게도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기를 권한다.

‘뜻을 세우고, 생각에 간사함이 없으며, 모든 일에 공경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율곡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킨다면, 모든 스포츠인들이 더 좋은 기량을 위해 정직하게 땀 흘리며, 타인을 배려하는 스포츠 정신도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스포츠가 단순한 경쟁을 넘어 올바른 가치와 윤리를 배울 수 있는 장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율곡이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이다.



부산광역시체육회-구·군체육회-대한체육회 지역체육 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



부 및 사무국장 인건비 증액 ▲회원종목 단체장 인준 시 중앙종목단체 인준절차 폐지 ▲국가대표 선수 차출에 대한 보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유승민 회장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올해는 25년 만에 부산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부산광역시체육회 역사

상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해로 대한체육회와 부산광역시체육회, 구·군체육회, 선수와 지도자 모두가 멋진 파트너십을 발휘하여 동반 성장할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은 “스포츠 개혁 TF를 설치·운영해 지방체육회의 ‘자생력 확보’ 및 ‘운영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상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해로 대한체육회와 부산광역시체육회, 구·군체육회, 선수와 지도자 모두가 멋진 파트너십을 발휘하여 동반 성장할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은 “스포츠 개혁 TF를 설치·운영해 지방체육회의 ‘자생력 확보’ 및 ‘운영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제4회 부산광역시체육회장배 축구대회 성료 부산 관내 공공기관 직장 축구 동호인 450여 명 참가

공공기관 직장인들의 화합과 체력증진을 위한 ‘제4회 부산광역시체육회장배 축구대회’가 지난 3월 22일(토) 기장월드컵빌리지 축구장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올해 4회째를 맞이하는 부산광역시체육회장배 축구대회는 공공기관 직장인을 대상으로 건강한 생활체육 활동 기회를 제공하였다. 대회는 구성원 간 화합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16개 팀 450여 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펼쳤다.

결승전에서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최고의 경기력으로 부산지방우정청을 3 대 1로 꺾고 대회 3연패를 달성하였다.



였으며, 부산경찰청과 부산광역시태권도협회가 공동 3위를 거두며 대회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대회에 참가한 모든 팀에게 격려와 포부를 전하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직장인의 건강 증진과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광역시검도회, 부산광역시체육회 검도 실업팀에 후원금 전달 부산 검도 발전을 위한 부산 검도인 훈련 여건 개선 등 기대

부산광역시검도회는 25년 만에 부산에서 개최하는 전국체육대회에서 검도 종합 우승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검도인 20여 명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1,200만 원 후원금을 부산광역시체육회로 전달하였다.

부산광역시검도회 임원 및 검도인들은 2024년도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여자일반부 금메달을 이룩한 부산광역시체육회 검도 실업팀이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남·여 일반부 동반 우승을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응원과 지원을 보내고 있으며, 지난 3월 25일(화)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에서 후원금 전달 및 부산 검도 발전을 위한 제안을 하였다.

이번 후원금은 종목별 체육인이 부산광역시체육회로 후원한 첫 사례로, 타 종목에 선한 영향력을 미침으로써 부산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광역시검도회 허문회 회장은 “25년 만에 부산에서 개최하는 전국체육대회에서 부산 검도인들이 후원하고 응원하여 종합 우승이라는 최고의 성적을 만들어 내자”는 응원의 말을 전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이번 후원금을 통해 검도 종목뿐만 아니라 전국체육대회 참가 모든 종목에 관심과 응원의 분위기가 고조되기를 기대하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성적 상위권 입상을 목표로 더욱 매진하겠다”고 하였다.





구군체육회 소식

중구체육회



2025년 생활체육교실 및 장수체육대학 운영

2025년 생활체육교실 및 장수체육대학이 중구민을 대상으로 한신스포렉스 외 7개소에서 개강하였다.

중구민이 선호하는 종목을 반영한 생활체육교실 4종목(필라테스, 테니스, 수영, 골프), 장수체육대학 5종목(실버수영, 다이어트체조, 라인댄스, 탁구, 파크골프)을 운영함으로써 참석률을 높였다. 이러한 체육 활동 기회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효과 및 신체 활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활기찬 일상생활과 건전한 여가선용 여건 조성의 계기가 되었다.

서구체육회



구덕정 개정 52주년 기념 상사대회 및 제28대 사두 취임식 개최

3월 23일(일), 서구 구덕정에서 ‘구덕정 개정 52주년 기념 상사대회 및 제28대 김삼남 사두 취임식’이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광역시서구공도협회 관계자와 정의 사우 그리고 내빈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구덕정은 1973년 3월 개정 이후, 전국체육대회 포함 다양한 공도 대회를 개최하는 등 전통과 역사를 이어온 유서 깊은 공도장이다. 이번 행사는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공도인들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어서 제28대 김삼남 사두의 취임식이 거행되었는데, 서구체육회 김용구 회장이 직접 김삼남 신임 사두에게 인준서를 전달하며 취임을 축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삼남 신임 사두는 “구덕정의 전통을 계승하고 공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동구체육회



‘좌천 주민 활력 어울림 파크’ 착공식 개최

동구는 3월 13일(목) 2017년 폐교된 좌천초등학교 부지에서 ‘좌천 주민 활력 어울림 파크’ 착공식을 개최하였다.

좌천초는 지난 1972년 개교한 이래 한때 재학생 수가 1,000명이 넘었지만, 지역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2018년 마지막 졸업식 이후 폐교됐다.

‘좌천 주민 활력 어울림 파크’는 폐교 용지 8,531㎡에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의 건물로 조성된다. 총사업비 495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7년 준공 예정이다.

영도구체육회



제20회 영도구 볼링협회장배 볼링대회

지난 3월 30일(일), 송도 대림볼링센터에서 제20회 영도구볼링협회장배 볼링대회가 개최되었다. 영도구체육회 한영익 회장은 이날 개회식에 참석하여 격려금 전달식을 진행하고 볼링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참가한 모든 선수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대회는 볼링 동호인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하며 경기력을 높이는 기회가 되었다.

부산진구체육회



2025년 부산진구 여성축구교실, 뜨거운 관심 속 힘찬 출발

지난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부산진구 여성축구교실이 3월 11일(화) 올해 첫 수업을 시작하였다. 참가자 모집은 2월 24일(월) 선착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뜨거운 관심 속에 빠르게 마감되었다.

이번 축구교실은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김영우 주니어풋볼아카데미에서 매주 화요일 오전 10~12시(정원 15명), 황령산 레포츠클라운 축구장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 19~21시(정원 40명)에 운영된다.

부산진구 여성축구교실은 여성들이 축구를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며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구군체육회 소식

동래구체육회



제11회 동래구축구협회 클럽대항 축구대회 개최

3월 16일(일), 수영환경공단에서 동래구축구협회 클럽대항 축구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많은 축구 동호인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펼쳤으며, 각 부분별로 뛰어난 기량을 선보였다. 특히, 선수들의 수준 높은 경기력과 팀워크가 돋보였다.

이날 동래구축구협회장은 참가한 모든 팀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박수를 보내며,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축구의 발전과 동호인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대회가 지속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더욱 발전된 모습의 축구대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경기 결과를 떠나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진정한 스포츠맨십을 보여주었다.

남구체육회



2025 어린이체능교실 승마체험 진행

남구체육회는 3월 23일(일) 대구 비슬승마체험장에서 '2025 어린이체능교실 승마체험'을 진행하였다. 남구 관내 초등학교생들은 승마를 통해 전신 운동을 하며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과 책임감을 배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먹이주기 체험에서는 말과 직접 소통하며 친밀감을 형성함으로써 공감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었다.

북구체육회



2025 제18회 북구협회장배 볼링대회

3월 9일(일), 만덕 현대레포션볼링센터에서 제18회 북구협회장배 볼링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 결과 1등은 박영민(아수라), 2등은 임경두(유니온), 3등은 이지원(아수라)이 수상하였다. 참가자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하였으며, 대회는 화합하는 분위기 속에 안전하게 마무리되었다.

해운대구체육회



동체육회 간담회 개최

3월 6일(목), 해운대구체육회 소속 동체육회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18명의 동체육회장이 참석하여 해운대구 내 동체육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체육시설 개선 및 운영 지원 필요성 검토 등의 안건으로 토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체육으로 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해운대구를 만드는 것과 더불어 소통하는 한 해가 되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사하구체육회



‘제42회 사하구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 개최

사하구체육회는 지난 3월 16일(일) 을숙도축구경기장(A, B, C구장)에서 ‘제42회 사하구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를 개최하였다.

동호인 300여 명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대회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경기 결과 우승은 감천FC, 준우승은 부민FC, 공동 3위는 사동FC와 낙동FC가 차지하였다.



구군체육회 소식

금정구체육회



제11회 금정구협회장배 탁구대회 개최

3월 22일(토), 금정구탁구협회는 스포원실내경기장에서 제11회 금정구협회장배 탁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는 금정구탁구협회의 이진우 신임 회장의 첫 대회로, 내빈 및 체육회 임원 포함 3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진우 회장은 “금정구탁구협회가 더욱 발전하고, 동호인들의 열정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회는 동호인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이는 금정구 생활체육 탁구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연제구체육회



2025년 연제구축구협회 고문&자문배 친선축구대회

연제구체육회는 지난 3월 9일(일) 연제구축구협회 31개 클럽 1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아시아드축구전용경기장에서 2025년 연제구축구협회 고문&자문배 친선축구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 결과, 관내1부 우승 상신C클럽, 준우승 상신D클럽, 공동 3위 상신B클럽, 백우클럽, 관내2부 우승 청룡A클럽, 준우승 청룡B클럽, 공동 3위 왕클럽, 상신A클럽, 60대부 우승 상신A클럽, 준우승 한새B클럽, 공동 3위 상신B클럽, 무지개클럽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수영구체육회



2025년 박원욱병원장배 겸 제22회 수영구배드민턴협회장기대회 개최

부산광역시수영구배드민턴협회가 주최한 2025년 박원욱병원장배 겸 제22회 수영구배드민턴협회장기대회가 3월 2일(일) 국민체육센터 2관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총 11개 클럽 450여 명의 동호인이 참가하였으며, 수영구청장과 수영구체육회장이 방문하여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건넸다. 또한 이번 대회는 동호인들이 공통의 관심사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뜻깊은 대회였다.

사상구체육회



제21회 사상구 탁구협회장기 탁구대회 및 회장 이·취임식 개최

3월 23일(일), 사상구 다누리 체육센터에서 제21회 사상구 탁구협회장기 탁구대회 개회식과 탁구협회 회장 이·취임식이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다양한 체육 관계자들과 탁구 클럽별 참가 선수 약 500명이 모여 대회의 시작을 함께했다.

사상구체육회 강진태 회장은 축사에서 김성종 전 회장의 탁구협회 발전을 위한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신임 김옥조 회장이 더욱 큰 발전을 이끌어 가길 기원했다.

2025년 첫 체육 행사였던 이번 대회는 탁구의 저변 확대와 지역체육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장군체육회



제10회 기장군 배구협회장배 클럽대항전 개최

3월 마지막 주 주말, 기장체육관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제10회 기장군 배구협회장배 클럽대항전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기장군배구협회가 주최하고, 기장군배구협회소속 클럽 및 관내 교사팀의 참여로 이루어진 행사로, 배구를 사랑하는 이들의 축제의 장이 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관내 클럽 간 친목을 도모하고 우애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나아가 지역 스포츠 활성화와 배구 저변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국민체육센터



2025년 생활체육 배드민턴 교실 개강

부산국민체육센터는 부산 서구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서구체육회와 협력하여 생활체육 배드민턴 교실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생활체육 무료교실’은 배드민턴 프로그램으로, 부산 서구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생활체육 무료교실에 접수한 한 회원은 “집과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교실이 있어 너무 좋다”고 말했다. 부산국민체육센터는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시민들이 체육 활동을 통해 건강한 삶, 풍요로운 삶을 누릴 기회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북구국민체육센터



‘학교밖 신나는주말체육학교’ 운영

북구국민체육센터는 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댄스를 즐겁고 쉽게 배울 수 있는 ‘학교밖 신나는주말체육학교’를 진행한다. 신나는주말체육학교는 4월 12일(토)부터 7월 19일(토)까지 매주 토요일 15주에 걸쳐 K-POP 댄스 수업을 진행하며, 참가 신청은 신나는주말체육학교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북구국민체육센터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심신이 한층 성장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보급에 힘쓸 예정이다.

INFORMATION

강서구국민체육센터



강서구국민체육센터 직원 안전보건교육 실시

강서구국민체육센터는 직원을 대상으로 재난 대비 응급구조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였다. 센터장과 직원들은 응급 상황 시 대처법 숙지 등 강서구국민체육센터 회원들이 안전하게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수상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



테니스장 운동 환경 개선 공사

3월 27일(목), 테니스장 신규 규사 도포 및 실내 대청소를 실시하였다.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은 노후된 규사 제거 및 신규 규사 도포와 동시에 실내 대청소로 운동 환경을 개선하여 이용회원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신평장림체육관



체육관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지난 3월, 신평장림체육관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성희롱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예방을 위한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교육은 운영부장의 지도 아래, 성희롱의 정의와 사례, 성희롱 발생 시 대응 방법 등을 상세히 다루었다. 모든 직원은 교육을 통해 성희롱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을 다짐하였다.

부산광역시테니스협회

1

2025 부산광역시장배 클럽테니스대회 개최

3월 12일(수)과 15일(토), 2025 부산광역시장배 클럽테니스대회가 개최되었다. 부산광역시테니스협회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테니스 동호인 1,000여 명이 출전하여 열띤 경쟁을 펼쳤다.

남자부	우승	준우승	3위
금배A조	불나비클럽	동맥클럽	-
금배B조	마스터즈(청)클럽	-	-
은배조	효원(청)클럽	덕두클럽	인사이드클럽
동배조	반도(청)클럽	메트로2(청)클럽	신세계(청)클럽 인사이드클럽
여자부	우승	준우승	3위
금배조	다운클럽	오렌지클럽	-
은배조	강서원더클럽	나인클럽	-
동배조	다운A클럽	금강A클럽	오렌지A클럽 다운B클럽



동의과학대스포츠클럽

2

DITSC 유소년축구팀,
‘2025 3차 키파컵 제9회 김천포도배 전국유소년축구페스티벌’ 참가

동의과학대학교 스포츠클럽팀인 DITSC 유소년축구팀이 지난 3월 9일(토)부터 3월 30일(일)까지 경상북도 김천시에 위치한 경북보건대학교 축구장에서 열린 ‘2025 3차 키파컵 제9회 김천포도배 전국유소년축구페스티벌’에 참가하여 역량을 발휘했다.

이번 대회는 한국유소년축구협회가 주최하고, 김천시 및 경북보건대학교가 협력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전국 각지에서 모인 총 25개 팀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펼쳤다. 페스티벌은 유소년 축구의 저변 확대와 선수들의 실전 감각 향상을 목적으로 기획되었으며, 매년 규모를 확대하며 명실공히 국내 유소년 축구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DITSC 유소년축구팀은 동의과학대학교의 스포츠클럽 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내 축구 유망주들

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실력을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동의과학대 스포츠클럽은 유소년 대상의 일반 축구 교육뿐 아니라 ‘축구 전문선수반’을 별도로 육성, 향후 엘리트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고 있다. 이로써 동의과학대는 지역 내 축구 유망주들에게 폭넓은 성장 기회를 제공하며, 학교와 지역 사회가 함께 스포츠 인재를 발굴하고 키우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DITSC 유소년축구팀은 예선 라운드를 무사히 통과하며 12강 진출에 성공하는 저력을 보였다. 이후 펼쳐진 본선 경기에서 1승 2패의 성적을 거두며 아쉽게도 8강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강팀들과의 치열한 접전 속에서 뛰어난 조직력과 개별 선수들의 기량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산체육을 더욱 재미있게 즐기는 방법!

『부산체육』을 읽고 이벤트에 응모해 보세요. 이번 호에 실린 기사에서 퀴즈의 정답을 모두 찾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편의점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이번 호의 <부산체육> 인터뷰 대상은 부산광역시 체육국 손태욱 국장입니다. 전국 최초로 신설된 체육국은 3개 부서와 1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보기 중 체육국 소속이 아닌 곳은 어디일까요?
① 체육정책과 ② 생활체육과 ③ 체육진흥과

2 부산은 올해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지입니다. 이번 호에 게재된 복구에서 개최하는 종목이 아닌 것은 무엇 일까요?
① 수상스키·웨이크 스포츠 ② 축구 ③ 탁구

3 『부산체육』에서는 전문체육인,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이번 호 인터뷰에 나오지 않은 스포츠는 무엇일까요?
① 근대5종 ② 배구 ③ 농구

『부산체육』 제76호 <부산체육 퀴즈> 정답 및 당첨자

정답	당첨자
1. ② 승마 2. ① 1957년 3. ② 복싱	박*용(5407) 황*현(7795) 천*욱(1288) 이*임(2473) 금*진(9525)
	김*실(1589) 권*애(9777) 정*담(1581) 김* (1400) 우*민(5629)

퀴즈가 조금 어려우신가요?
힌트와 해당 기사를 참고하여 풀어보세요!



1 **힌트** 체육국은 ○○○○○, ○○○○○, 전국체전기획단,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등 3개 부서 1개 사업소로 구성되었다.
<부산체육> 9쪽

2 **힌트** 부산 북구 화명동에 위치한 화명수상레포츠타운은 제106회 전국체전에서 ○○○○·○○○ ○○○ 경기가 열리는 주 무대다.
○○ 경기는 화명생태공원 C구장과 D구장에서 치러진다. 낙동강변의 넓은 자연 속에서 경기를 펼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 장점이다.
<경기장 밖 부산> 22쪽

3 **힌트** 전문체육인,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이야기가 담긴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체육>, <금빛 훈련일지>, <푸른 바다, 큰 꿈>, <함께하는 부산체육>
목차 2쪽

이벤트 응모

퀴즈의 정답을 모두 맞힌 분 중 10명을 추첨하여 편의점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응모 기간	2025.4.15.(화)~2025. 4.30.(수)
응모 방법	네이버 플랫폼 양식 작성 후 제출
정답 및 당첨자 발표	『부산체육』 제78호 <부산체육 퀴즈> 게재 및 개별 연락



네이버 플랫폼 바로 가기



www.busanaircruise.co.kr

부산광역시체육회 공식파트너

BUSAN AIR CRUISE
송도해상케이블카

송도해상케이블카 부산에어크루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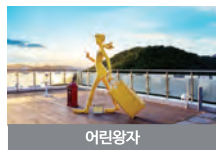
볼수록 새로운 바다! 갈수록 색다른 재미! 탈수록 즐거운 송도해상케이블카
하늘과 바다를 가로지르는 감동, 생생한 테마와 즐거움을 경험하세요!



스카이하버 전망대



다이너 어드벤처



어린이왕자



어린이왕자 비행기



소원의 용



모멘트 캡슐

문의전화 051) 247-9900



BUSAN AIR CRUISE
송도해상케이블카

DaewonPlus Group
대원플러스그룹



AP-01 라운드 긴팔 BLACK
SS 숏스탑 반바지 BLACK

부산광역시체육회 공식스폰서

프로 선수의 스포츠웨어, 어썸스타

KEEP GOING

롯데디자인츠 선수

No.21 박세웅

<https://awesomestar.co.kr/>



walkon, 편안함을 넘어 회복으로

walkon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회복을 추구합니다.
수동적인 멈춤을 통해 회복하는 개념이 아닌, 능동적인 걸음을 통해
당신의 일상을 빠르게 회복시킵니다.

걸음을 켜고(walkon) 건강을 신다



특허출원번호
제 10-2170264호

REUSHION



Heal Heel

충격에너지를 공간에서 소비하게
만들어, 종아리와 요추에 전달되는
충격을 20~25%가량 줄여줍니다

Toyole

발바닥의 용천혈을 자극하여, 운동
후 생기는 발의 피로와 붓기를 빠르게
회복시킵니다

Reushion Project

Reushion Project를 통해 환경의
보호와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실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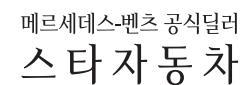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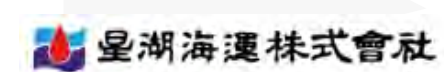
After Sports

운동후 피로 회복 / 건강회복에 도움

walkon

구입처 <https://walk-on.co.kr/> 문의처 051-521-3442

부산광역시체육회 골드멤버 BUSAN SPORTS COUNCIL GOLD MEMBER





♥ 두근두근 당신을 가슴 뛰게 하고 싶어서

2025년엔 당신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일게요

BNK부산은행이
당신의 내일을
가슴 뛰게 만들 테니까

세상을 두근거리게
BNK부산은행



행복온도°

세상을 따뜻하게, 사람을 행복하게
부산도시가스는 '함께'의 세상을 실현합니다.
사람으로 향하는 따뜻한 길
부산도시가스가 행복온도(溫道)를 만들어갑니다.

부산도시가스 | **SK** 이노베이션
E&S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력

- 행복도시락 (2007~)
- 사랑의 김치나눔한마당 (2011~)
-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고독사 예방 (2020~)
- 사회적 약자보호 업무협약 (2022~)

보편적 에너지복지를 위한 노력

- 에너지소외계층 안전점검 및 CO경보기 지원 (2007~)
- 복지시설 노후 가스기기교체지원 (2015~)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

- 착한에너지학교 (2011~)
- 행복한 에너지 동행 (2023~)